
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8. 5.(수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 도로시설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강성습, 사무관 박선훈, 주무관 김종현 • ☎ (044)201-3927, 3926, 3931	
보 도 일 시	2020년 8월 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5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6일부터 화물차·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

- 코로나-19 장기화로 징수유예·생계형 운전자 대상 추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**코로나-19**로 인해 한시적(5.6~8.5)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,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.
- 국토부는 지난 5월 **코로나-19**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**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**에 부과되는 과태료(약 50억 원)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.
-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응답자 1,436명 중 83%에 해당하는 1,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, 78%인 1,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**코로나 지원 대책**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.
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이번 정책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며, 코로나-19로 인해 늘어날 물류수송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 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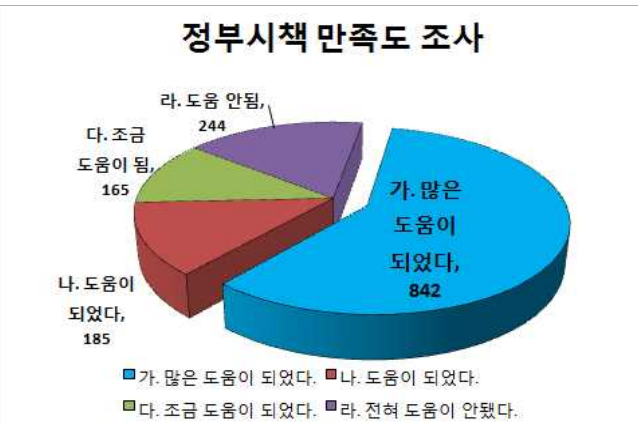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 시설안전과(운영제한) 박선훈 사무관(☎ 044-201-3926), 김종현 주무관(☎ 044-201-39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

참고

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기연장 만족도 조사(7.16~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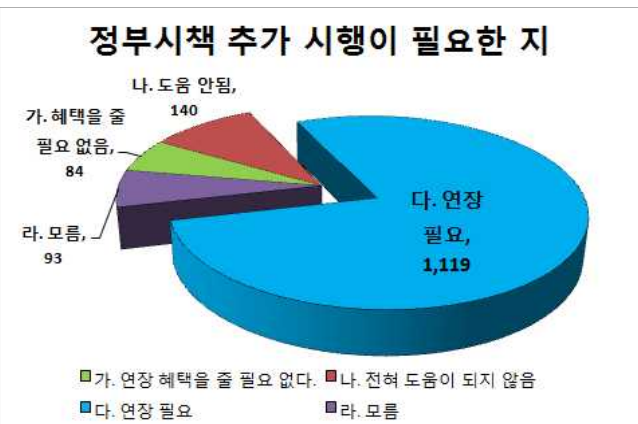
1. (운전자)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정부시책 만족도 조사

문항	답변수	비율
가.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.	842	59%
나.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었다.	185	13%
다.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다.	165	11%
라.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됐다.	244	17%
합계	1,436	100%



2. (운전자)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대상자를 8월 5일에서 추가가 필요한 지 여부

문항	답변수	비율
가. 질서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줄 필요 없다.	84	6%
나. 생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필요 없음	140	10%
다. 코로나19 극복 및 생계에 도움이 되므로 연장 필요	1,119	78%
라. 모름	93	6%
합계	1,436	100%



3.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주간별 현황(5.6 ~ 7.31)

